

◎ A Note to Korean Library Science Education

試鍊과 變貌 (上)

韓國圖書館學 教育에 대한 覺書

金 世 翊

(梨花女子大學校 圖書館學科 教授)

1. 序 論

A. 변하는 것과 변치 않는 것

아직도 우리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생소한 인상을 주고 있는 대학의 도서관학과가 정보과학과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으로 변해버렸을 뿐만 아니라 커리큘럼도 지금까지의 도서관학의 개념을 대폭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변화 시킬만큼 개정된 것이 작금의 외국의 모든 도서관학과나 도서관학과의 공통되는 현상이다. 이런 현상은 몇 사람의 주장에 의하여 된 것도 아니며 우연히 그렇게 된 것도 아니며 오직 역사적 시대적 필연성이라고 할 수 밖에 없으며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적 조류에 역행할 수도 없고 이것을 지체시킬 수도 없고 또 외면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에 개인적으로나 부분적으로는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커리큘럼의 내용이나 그 방법은 그리고 학과의 명칭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좋게 말해서 전통적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전근대적이라고 솔직히 말할 수 밖에 없다. 변하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남이 다 변하고 전진하는데 우리만 고고하게 제자리 걸음을 한다는 것도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이것은 실로 중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는 날카로운 촉각을 발동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변화나 전진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요소에서 연유하는 것이지만 원인은 도서관 현장에도 있는 것 같다. 한 나라나 사회에서 도서관과 도서관학은 서로 불가분의 밀착관계에 있다. 의학이나 법학도 그렇지만 이와 같은 밀착관계는 도서관학의 경우는 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도서관 자동화(library automation) 작업이 눈부시게 진행되고 또한 도서관 봉사면에 있어서는 세밀화와 확대화 현상의 심화 등에 따라 도서관학 교육이 이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학과의 명칭이나 교과과정

내용이 변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지만 몇개의 특수한 도서관(이런 도서관은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을 제외하고는 우리 나라 도서관은 전에 비하면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 해도 이런 차원에서 관찰할 때 아직도 그 저조함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고 도서관학 교육도 이 수준을 면하기 어렵다. 현재의 도서관학 교육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은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에는 허다한 난관이 가로 놓여 있음을 또한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제가 개재되어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도서관과 도서관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저조하고 경제자립과 자주국방을 국가의 지상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도서관에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 없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우리 도서관인과 도서관이 넘어야 할 형극의 도정은 아직도 험하고도 요원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과거 몇해 동안에 한국의 도서관학 교육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쓰여진 논문이 도서관학 교육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교수들에 의하여 또 오랫동안 도서관 제일선에서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베테랑 사서들에 의하여 생산되었고 그 내용이나 사상은는 경청하고 수긍할만한 것이 여러편 있었다. 그동안 몇 차례의 모임을 가졌던 대학 도서관학과 교수 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 되었다. 그리고 보면 한국의 도서관학 교육의 이정표는 제시된 것이며 내가 이문제에 대하여 세삼스럽게 언급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것을 거론 하는 데에도 나대로의 그럴 이유가 있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에서 1973년부터 학점 이수수가 160학점에서 140학점으로 줄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공과 부전공제도가 생겨서 전공분야의 이수 학점수가 종전에 80학점 이상이던 것이 그 절반이하로 줄어들었다. 나머지 약 절반의 학점으로 부전공을 이수해야 한다. 단적으로 말해서 80여학점의 도서관학과목으로 이수하던 것이 40학점 이하의 도서관학 학점을 이수하면

법에 의한 정사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고 사서로서 일선에서 근무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도서관학을 전공한 학생들의 실력이 당연히 문제 될 것이며 그것보다도 학점이 절반으로 감축되는데 과연 어느 과목을 이수케하며 또 어떤 과목을 제거하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가 야기된다. 이런 사태는 이화여자 대학교 도서관 학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화여자 대학교는 실험대학의 하나로서 실시하는 것이며 1975년부터는 실험대학의 성공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하자는 것이 문교부의 방침으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대학의 각 도서관학과에도 곧 닦쳐올 절박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새로운 사태에 대하여 우리는 종전과는 다른 측면에서 한국도서관학 교육에 대하여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과거 여러 해 동안에 걸쳐 많은 교수와 현직 사서들에 의하여 한국의 도서관학 교육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세삼스럽게 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 뿐만 아니다. 새로운 사태에 대비하여 직접 교과과정을 작성해야 하는 도서관학과 교수들의 사상과 의견도 다양함을 알게 되었다. 얼마전 4개 대학 도서관학과 교수협의회 석상에서 장장 4,5시간 토론한 결론은 아무 것도 없고 다만 노출된 것은 교수들의 견해가 다소 다르거나 전연 다르다는 사실뿐이었다. 이런 견해의 차이는 교수들 뿐만이 아닐 것이며 한국의 도서관을 걱정하고 도서관학 교육을 염려하는 일선 사서들에게도 있을 것이다. 사태는 심각한 단계에 와 있다.

내가 여기에 발표하는 의견은 내가 근무하고 있는 이화 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와 견해와는 아무 상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외의 어떤 단체나 개인의 의견과도 무관한 순수한 내 자신의 소견이다. 이에 앞서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도서관학 교육의 현황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B. 증성한 敎育施設

역사가 짧고 객관적 인식도 희박한데 비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도서관학 교육기관 즉 사서 양성기관은 상당히 많고 증성하다.

- A. 대학원과정(석사과정).....2년
- B. 교육대학원과정(석사과정).....2년
연대, 이대(사서교육전공)
- C. 학부과정(학사과정).....4년
연대, 이대, 중대, 성대
- D. 사서교육원.....1년
성대
- E. 초급대학.....2년

송의여전, 부산 여전

F. 강습과정

국립중앙도서관, 기타 각교육위원회(정사서, 준사서, 사서교사)

G. 도서관학 강좌 개설

- 각 교육대학
- 경희대학교양학부
- 고려대학교교육대학원

대체로 이렇게 구분 할 수 있는데 다른 전문 분야에 비하여 오히려 활발하고 풍성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무슨 일이건 활발한 것은 반가운 일이라는 하나 여기에도 허다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 문제는 다루지 않겠다. 다른 사람에게 의하여 또 필자 자신에 의하여 다른 기회에 언급되기를 기대한다. 왜냐하면 이런 성향은 좋은 면도 있지만 사태를 어렵게 하는면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여기서 우리가 당면한 한국의 도서관학의 문제점에 대하여 솔직하게 그리고 노골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이와같은 서두를 구지 쓰게되는 이유는 도서관학에 대한 사상이나 견해가 사람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앞에서도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의 의견을 발표하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반박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필자는 반박과 비난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대국적인 견지에서 볼때 다소의 논쟁이 있다해도 해결할 것은 해결해 나가야 옳다. 이미 지난해 저자기호표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에 걸친 논쟁이 있었다. 문제의 중요성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이와 같은 선의의 논쟁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런 논쟁은 인신공격이나 아집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 이상 그것은 어떤 의미로든지 한국 도서관학을 전진시킬 것이다. 그뿐만아니라 내가 아는한 도서관학계에서는 최초의 본격적인 논쟁이란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필자의 이 글이 논쟁의 대상이 된다는 전제는 결코 아니다. 비난과 공박을 각오하고 있다는 뜻이다.

2. 本 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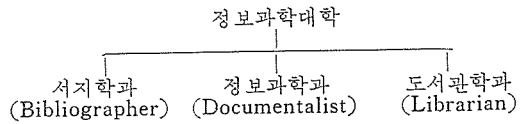
A. 單科大學 獨立과 大學院 昇格

1957년을 기점으로 하여 설치된 한국의 4개 도서관학과는 문리대학이나 문과대학에 소속되고 있다. 그것은 당면한 일로서 당시로서는 아무도 별다른 회의나 이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그리하여 이제 16년의 세월이 흘러 갔다. 즉 미국처럼 도서관학(지금은 정보과학이라는 것이 옳을 것이다)이 독립된 단과대학 대학원으로 되어 있지 못하고 어느 대학의 한 학과로 소속되지 않을수 없었던 학제상의

관계로 초창기부터 문리대 혹은 문과대학에 소속시켰고 그것은 또한 당연한 일로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사회에서나 일반사회에서 도서관학에 대한 이미지가 문과로 고정되고 말았다. 그러나 다 아는바와 같이 다른 나라에서는 도서관학이란 용어조차 없었고 정보과학이니 문헌정보학이니 하며 일본 경응대학에서도 도서관·정보과학과로 고쳐버렸다. 이렇게 학과의 이름이 변경 되는 것은 학과의 내용구성도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도서관학이 적어도 문과 일반도적인 것은 아니다. 그 뿐 아니라 순수학문을 하는 문과대학에 그렇지 않은 도서관학과가 소속된다는 것은 이방인 같은 소외감마저 주고 있다는 사실이 금번의 학제 개편 과정에 있어서 노출되었다. 새학제에 따라 전공과 부전공을 해야 되는데 영문과를 전공하고 불문과도 독문과도 부전공을 한다거나 사학과 전공 학생이 국문과를 부전공으로 한다는 것은 그 연관성으로 보아 무리가 없지만 도서관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부전공으로 무엇을 해야 가장 효과적일수 있는가(부전공은 동일계열에서 택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도서관학과는 문과대학내에서 독립성이 강하고 직업교육적 성격이 뚜렷하다. 물론 도서관학의 본질에서 볼때 어느 분야의 학문이든 다 필요하지만 그것은 전공 부전공 문제와는 다르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문과대학이나 문리대학에 도서관학과가 계속 소속되고 있다는 것은 재고될 문제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문과대학으로 이미 굳어져 버린것이 쉽게 고쳐지리라고는 믿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경험으로 보나 도서관학의 추세로 보아 필자는 다음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하나는 도서관학을 미국처럼 독립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필자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도서관학계의 일각에서 이미 거론되고 있는 사실이다. 간호대학이나 신과대학 축산대학 같이 단과대학으로 독립시키자는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전부터 사범대학에 소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사범대학이 원칙적으로 중고등학교 교사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서교사 양성이란 견지에서 보면 이유가 있지만 일반사서의 경우는 모순이 생긴다. 사실 미국에서도 인디애나대학에서는 과거에 사범대학에 소속되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친근한 조지 피바디대학은 본시 사범대학이다. 그러나 조지 피바디사범대학은 우리나라의 사범대학과는 다르다. 또 어떤 사람은 법정대학이나 상경대학에 두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여기에도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간호대학이나 신과대학처럼 독립 단과대학으로 하자는 의견이다. 독립단과대학으로 하고 그 밑에 과를 도서관학

과, 정보과학과 서지학과와 같이 세가지 정도로 나누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즉 도서관학과에서는 이른바 「라이브러리언」을 양성하고 정보과학과에서는 「도큐멘타리스트」 그리고 서지학과에서는 「비브리오그래퍼」를 양성하자는 의도다.



이러한 안을 구상하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령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한국개발연구원 또한 국방과학연구소 원자력연구원 같은 연구단체에 주로 소재하는 도서관이나 자료실에서는 현행 학부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사서로서는 충분한 봉사를 하기 어렵다는 것은 실무자들의 일치된 견해다. 주제 배경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도서관 기제화가 우리 나라에서는 가장 빠르게 실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비록 학부과정이라는 하나 정보과학과를 이수한 사서(실제적으로는 Documentalist)를 배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도서관은 현실적으로 각양 각색이다. 도서관은 지역사회의 배경과 무관할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고도의 봉사를 하는 도서관이 있는 반면에 학교도서관이나 소도시, 지방의 공공도서관도 있다. 그리고 그런 도서관의 수가 더욱 많다. 이런 유형의 도서관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서는 도서관학과에서 훈련시킬수 있을 것이다. 교과과정을 변경 발전시키면(교과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급한다) 기업체 회사 그외의 특수한 도서관이나 대학학부 도서관(Undergraduate Library)에서도 일할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서지학과에서는 주로 서지학 논문, 동양고서를 다루는 이른바 Bibliographer를 양성시킬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대학도서관학과에서 이수하는 그 방면의 학습으로서서는 우리 나라 도서관에 소장되고 있는 고서를 취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문에 대한 실력 역사학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이상 특별히 교육을 받은 자라야 한다. 그리고 한문과 같은 것은 1년 2년으로 되는것도 아니다. 우리 나라에서 이방면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은 한학을 했거나 동양역사를 전공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을 보아도 짐작 할수 있다. 봉사의 량과 질에도 관계되었지만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서들 중에는 도서관학이 바로 서지학이거나 또는 서지학이 한국도서관의 주류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마저 나타나게 된다.

우리 나라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서는 다른 일반 도서관 자료에 비해 몇가지 특징이 있다.

a) 수서량이 한정되었다.

영인본 같은 것이 더러 수입되는 경우가 있지만 고서는 다른 자료처럼 계속적으로 도서관에 수입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한정성이 있다.

b) 이용자의 제한

고서를 이용하는 사람 혹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이용자는 그 수가 제한 되어 있다.

c) 고서취급의 특수성

고서를 분류한다거나 편목하는 것은 다른 의미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그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한문과 한문학 그리고 동양의 역사에 대해서도 깊은 교양이 요구된다. 그런 실력을 현재의 대학도서관학과에서 습득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공부야 따로 있어야 하거나 도서관 현장에서의 오랜 수련이 요구된다. 그리고 고서의 감별이나 휘귀본의 식별 같은 것은 엄격히 말해서 라이부라리언의 직무가 아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의 일이며 도서관학 이외의 다른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현재의 도서관학은 Librarian과 Documentalist와 그리고 Bibliographer를 같은 차원에서 다룰려고 하니 심각한 모순점이 노출되곤 한다. 도서관학과가 독립된 다른 단과대학이 되고 그 밑에 도서관학과 정보학과와 서지학과를 나누어서 두자는 의견은 이때문에 나오게 된다.

미국에서 Librarian과 Documentalist를 따로 양성하고 별개의 학위를 주는 대학이 생기게 되는 이유도 이런데 있을 것이다.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도서관학을 위한 단과대학이 학부수준이 아니고 대학원 수준이어야 할것이다. 그러나 대학원 과정에만 둔다거나 세계의 학과를 가진 정보과학대학이 하나의 단과대학으로 독립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실현성이 없는 일이다. 우리 나라의 정책수립 담당자나 문교부 같은 부서 우리 분야에 대하여 그렇게 깊은데까지 이해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들을 충분히 설득시킬 힘이 우리 나라 도서관계나 학계에 있지 못하다.

그러나 이것은 도서관학의 당면한 긴급한 문제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지금 당장에 좋은 해결은 없을지라도 이문제를 위한 노력이 계속적으로 또 강력하게 주장되어야 할것이라고 믿고 있다.

지금처럼 문과대학의 하나의 과로서 종합적으로 도서관학과 정보학과와 서지학을 같이 평면적으로 교육

하고 있는 상태는 도서관 전문직을 양성한다기 보다 도서관에서의 서기직을 만들고 있다는 결과가 된다. 주제배경도 없이 평면적으로 도서관학을 이수한 학생들의 능력이란 한도가 있기 마련이다.

전문직이란 다만 도서관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사 서나 준사서나 사서교사의 자격증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성립되지 못한다. 현재의 우리 나라 도서관 중의 몇몇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그 업무자체에서 전문성을 인정할수 있는 부분이 극히 한정되어 있다.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국민학교나 중학교를 또는 고등학교를 나오기도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또는 도서관학과를 나오지 않고도 얼마동안의 훈련과 경험으로 해 낼수 있는 일도 많다. 도서관학과 4학년 학생들이 현지 실습을 다녀와서 보고하는 중에 그 정도의 일을 하기 위하여 4년동안 도서관학을 공부하는데 회의를 느낀다는 말도 있고, 그 반면에 도서관측에서는 도서관학과를 졸업하고 온 학생들이 별로 쓸모가 없다고 하는 의견도 있다. 이것을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나라 도서관의 현실이 그 수준의 격차가 심하다는 말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도서관의 업무란 범위가 넓고 복잡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가장 고기술을 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문적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분류 목록도 사실은 기계적인 일이다. 인쇄카야드가 나오고 가령 미국문화원 도서실처럼 「마이크 방식」이 도입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도서관인의 전문성이 인정되기 위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a) 독점권의 확립

아무나 마음대로 재판행위를 할 수 없다. 아무나 마음대로 환자에게 주사를 놓거나 배를 췌수가 없다. 그러나 아무나 장사를 할 수 있고 국회의원에 입후보할 수 있고 능력과 실력과 재수가 있으면 국회의원이 될수 있을 것이다. 사서는 그 어느 쪽일까, 애매모호한 상태다. 비록 도서관법에 의한 규제가 있다 해도 현실은 모호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아직도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의 개념이 이 땅에 도입된 것이 일천하고 일반적으로 도서관 봉사가 단조롭고 도서관학교육 내용도 확립되지 못하고 객관적으로는 사회적 여건의 불리한것 등에 그 이유가 있다. 사서가 인류문화 전승자로서의 사명감과 정보제공의 대행인으로서의 자각이 뚜렷해지고 정보추적과 분석 배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적 장치로서의 도서관을 형성하고 지식과 정보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봉사 할수 있을 때 비로서 사서의 직업적 독점권이 확

립될 것이다. 우리의 직업적 독립권이 형성되지 못하는 원인은 외부에 있다기 보다 차라리 우리의 내부에 더 많이 있지 않은가.

b) 知識體系로서의 도서관학

전문직이 되기 위한 훈련과정에 있어서 이수하는 과목은 배경에 과학적인 이론 체계가 뚜렷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도서관학은 의학이나 법학 정도의 과학적 체계를 가진 학문이 되기에는 아직도 많은 세월이 필요하다. 근대 도서관학의 창시자인 멜빌 듀이 때부터 이것은 문제였다. 「윌리엄슨 보고서」 이후 많은 획기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으나 도서관학 자체는 아직도 그런 의미에서는 미약한 점이 있다. 근자에 와서 정보과학의 도입 도서관기획화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새로운 발전이 기대되지만 정보과학의 이질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존재하는 이상 이것은 여전히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과학적 지식체계를 가진 높은 학문으로서의 도서관학을 수립하는 학문체는 20세기 도서관의 하나의 중요한 과제이다. 몇해전부터 우리 나라에서도 젊은 엘리트 라이부라리언들에 의하여 본격적인 연구가 시도되고 있는 것은 이런 점에서 볼 때 대행한 일이다. 과학적인 시야와 통계학적인 수법으로 아무로오치를 시도하고 있는 일련의 경향은 그것이 단순한 호사가적인 태도이거나 현학적인 것이 아닌 이상 우리 나라 도서관학의 하나의 디딤돌이 되리라고 믿고 있다.

c) 自主的 任務遂行

전문직이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스스로 지니고 있는 지식과 능력에 따라 필요하고도 적절한 판단과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주성이 보장 되어야 한다. 관리자의 행정적인 지시에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도서관 봉사면에 있어서는 자주적 입장이 보장되는 것이 전문직이 일반직과 구별되는 점이다. 그만한 자주성이 보장 된다는 것은 또한 그만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자주성과 책임을 구비할려면 사서는 그만한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투철한 실력과 능력은 도서관학과의 교육에서만 형성 될 수는 없다. 그는 도서관 현장에서 나가서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전문직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도 현장에서 계속 연마하는데에 있다. 우리 나라 도서관계를 볼때 장래에 기대를 걸수 있는 사람은 현장에서 계속 연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d) 기 타

그외에도 전문직의 특성은 많다. 가령 전문직의 관심의 대상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고 사람중에서도 지식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점. 또 권위를 가지고 일한다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푸라이버시」를 존중한다는

것. 봉사정신이 기초가 된다는점 봉사의 개선유지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책임을 저야한다는 점등을 들수 있을 것이다. 사서의 전문성이 확립되기 위하여 도서관학 교육기관이나 도서관 현장에서 지금보다는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 된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언급하겠다.

결국 도서관학과의 제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문리대학이나 문과대학에 소속된 학부가 아니라 독립된 단과대학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 과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미국처럼 대학원 과정에서만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차원이 높은 봉사에도 적용되는 사서를 길러내자는 것이며 초급대학이나 강습과정에서는 clerical worker 의 일을 담당하는 사서를 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정사서 준사서 사서교사의 개념이 애매 모호하다 그것을 구별 할 수 있는 내용적인 차이를 부각시킬수가 없다. 단과대학 독립안이 현실성이 희박하고 대학원 도서관학교안도 그렇다면 나는 차라리 도서관학과를 이공대학에 소속시키거나 자연과학계열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도서관학의 추세로 보나 또한 장래의 전망으로 미루워 볼때 도서관학은 그 면칭이 어떨던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 보다는 자연과학적 발전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발생은 현재의 우리 나라의 도서관이나 도서관학의 현실을 근거로한 것은 아니다. 다만 세계적인 추세나 정보과학의 본질을 살필때 도큐멘테이션이 자연과학분야에서 수학이나 통계학이나 전자 공학을 토대로 한 새로운분야로서 우리 나라에서 발전해 나간다면 도서관학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따르게 된다. 도서관학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나라에서도 시련기에 처해 있고 우리는 어떤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왔다고 보는 것이다.

이화여자대학은 1973년 부터 다른 대학도 내년 내후년에는 곧 당면될 문제들이다. 계열별로 학생을 모집할 때 도서관학 전공이 80학점에서 40학점으로 줄게되고 의무적으로 부전공을 해야하며 또한 다른 전공학생에게 도서관학을 부전공으로 개방해야 한다. 이에 따른 문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도서관학을 전공한 학생이나 부전공을 한 학생들도 졸업 할때 현행 법규상 정사서 자격이 똑 같이 수여 된다. 이 모순은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그리고 도서관학 전공과목으로 무엇을 개설할 것이며 절반으로 줄어드는 과목은 어떤 것이 될 것이며 부전공으로는 무엇을 택할것이며 그 부전공이 그정도로 도서관에서 바라는 주제 배경이 될 수 있는 것일까 등등 문제는 산적해 있다. 이런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이

